

법공양 페이지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낙태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낙태를 바라보는 본격적인 연구서가 나온다. 자우스님(금강사주지) 편저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불교의 입장에서 낙태행위를 반대하는 이유와 경향지의 참회 낙태영가의 천도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도서출판 '일월'이 펴낸 이 책의 편찬동기와 과정을 들어본다.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지의 편집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과는 별도로, 통합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지

낙태는 '살인' ... 천도·참회 생활화하자

'어둠의 빛으로...' 떠난 자우스님

"사람은 태(胎) 안에서 49일만에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살고 싶어할지언정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어하는 생명은 산것이기 때문입니다. 산것은 본래부터 산것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이미 오래된 낙태는 엄격히 말해 '살인'에 해당되는 중대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시점에서 자우스님이 펴

입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이같은 계행의 실천을 뒷받침할 경제적 근거를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야말로 현대 사회의 제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앞서야 할 종교이며 그중에서도 살인행위에 해당되는 낙태를 반대하는 교설까지 분명히 갖추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우스님이 펴내는 <어둠의 빛으로...>는 낙태에 대한 불교인의 반대이유가 무엇인지를 불살생의

태아는 49일만에 사람의 형체 갖춰 22일부터 7주간 금강사 영가천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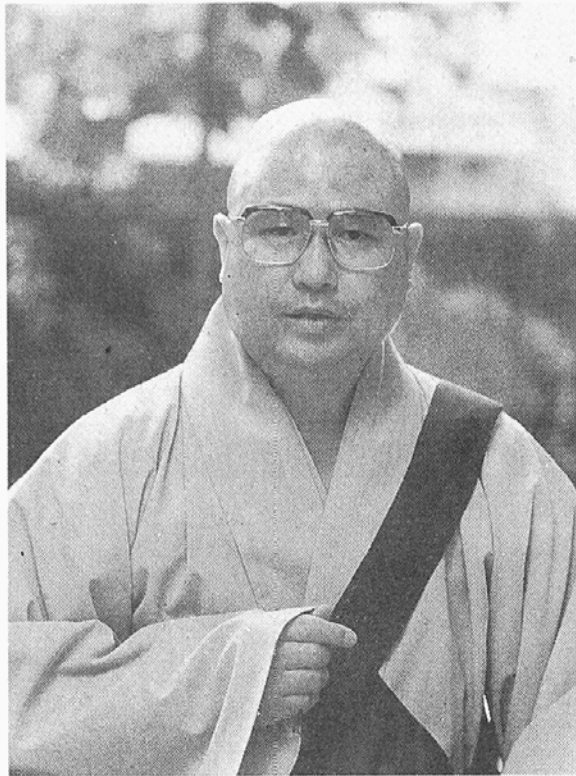
내는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는 불교의 반낙태 정신과 실천과제를 함께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불교는 불살생(不殺生)의 실천행을 제일의 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라는 살인행위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곧 불자가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원이며 그 실천행인 것입니다."

자우스님은 계행의 실천으로서 반낙태의 행위는 지극히 미명할 것

생명존중 정신에 입각해 밝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제시한 점, 그리고 이미 행해진 낙태행위에 대한 참회와 영가천도의 방법을 내놓은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두 영역을 학문적인 입장으로 접근해 본 논문들은 불교계의 반낙태 운동에 대한 좋은 전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22일부터 49일간 금강사에서 '태아영가를 위한 천도법회'를 봉행하게 될 자우스님은 이 책의 중요성과 발간동기 등을 서문에서 자세히 피력하고 있다.



◇ <어둠의 빛으로...>의 편저자 자우스님.

립된 '새 생명 사랑회'는 150여명의 회원이 서울과 전주에서 설립한 마리아 수녀회에서 무료 비디오투로 보급하며 낙태 반대운동 및 생명체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병원에서 태아의 시체를 작은 용기에 담아 태아의 시신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용역회사에 넘기고 있는데 태아의 시신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정중하게 화장한 후 그 유해를 지정 사원에 봉안하여 '올 지장 수자 영가'라는 명칭으로 천도 불공을 정성드려 봉행하고 있음을 필자는 많이 보았다.

"더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불살생계와 자비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자기의 알파한 체면치레에 의하여 생명체의 존엄성과 그 소중한 삶에 대한 정신을 찬양하여야 하는 도덕성의 결여 때문이다.

천국의 몇몇 사찰에서 단위별로 천도 불공을 올리면서 불자들에게 죄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부모와 울부짖으며 떠돌아다니는 태아의 슬픈 영혼을 천도하고 있지만 좀더 자비사상에 입각하여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주고 업과 원화설로 참회

업·윤회 사상 따라 '생명 존중' 앞장서야 태아관련 경전 많아...널리 독송 실천절실

특히 낙태의 원인이 성도덕 문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생명의 존엄성이 종교의 포교로도 강조되지 못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산부인과 의사 버드나 나탄슨이 제작한 '침묵의 절규'라는 비디오 필름을 보면 임신3주면 태아는 심장을 비롯해 모든 장기를 갖춘다. 임신 12주가 되면 키가 5cm 몸무게 28g 팔길이 5mm정도로 성장한다. 태아는 손가락을 발거나 발가락 돌음을 한다. 그때 자궁안으로 흡입시술기가 들어가면 태아가 의기외척을 느낀 듯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기구의 움직임이 격렬해질 수록 태아는 몸부림치며 태아의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필사적

로 피해다니다가 탯줄이 잘려지는 순간 입을 '악' 발린 채 죽어가는 모습으로 흡입기구에 빨려 들어간다. 이미 12주면 심장을 갖추고 명색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태아에게도 분명히 의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원인은 도덕성 결여

각 종교단체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지난 1975년에 설립된 가톨릭단체인 '행복한 가정운동본부'는 인천, 수원, 대전 등 지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낙태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가톨릭병원을 통해 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1983년에 설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마음을 써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달리 태아에 대한 경전을 갖고 있다. <증일아함경>에는 수태의 과정과 태아의 성장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불설포대경>도 태아의 발달과정과 윤회에 의한 과보의 적용과정 등이 실려져 있으며 <근본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낙태 현실의 심각성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종교차원에서 천도공양하며 참회하고 죄업을 소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근본원인인 건전한 생활 영위에도 불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태 속에서 생명을 잃은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참회 법요집 '오십삼존법경'

낙태자의 참회를 위한 법요집도 이 책에서 정리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사중금죄(四中禁罪), 오역죄(五逆罪), 십악죄(十惡罪)를 참회하고자 하거나 근거없이 불법을 비방한 죄를 제거,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오십삼존불을 공경하며, 예배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십삼존불 명호)

1. 보광불 2. 보명불 3. 보정불 4. 다라미라발전단향불 5. 전단광불 6. 마니담불 7. 환희장마니보적불 8. 일체세간요연상대정진불 9. 마니담등광불 10. 해거조불 11. 해덕광명불 12. 금강회광보산금강불 13. 대강정진용맹불 14. 대비광불 15. 자력왕불 16. 자장불 17. 전단광장엄승불 18. 현선수불 19. 선의

불 20. 광장엄왕불 21. 금화광불 22. 보개조공자재왕불 23. 허공보화광불 24. 유리장엄왕불 25. 보현색신광불 26. 부동지광불 27. 항복제마왕불 28. 재광명불 29. 지혜승불 30. 미륵선광불 31. 세징광불 32. 선적월요모존지왕불 33. 용중상지존왕불 34. 일월광불 35. 일월주광불 36. 해면승왕불 37. 사자후자재력왕불 38. 묘음승불 39. 삼광담불 40. 관세등불 41. 해위등왕불 42. 법승왕불 43. 수미광불 44. 수만나화광불 45. 우담바라화수승왕불 46. 대해력왕불 47. 아츠티환희광불 48. 무량승성왕불 49. 재광명광명불 50. 금해광불 51. 산해해자재통왕불 52. 대통광불 53. 일체법상만왕불

임신손실의 영향

임신은 되었지만 정상적인 출산에 이르지 못한 임신손실의 원인과 처치 및 그 영향에 대하여 의학적인 측면에서 정리한다.

임신은 되었지만 자연적인 인위적인 정상적 출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임신손실이라고 하고 임신소모증 태아가 생존가능한 발육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유산이라 하며, 생존가능한 시기에 이후에 종결되는 경우는 분만이라고 한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임신중절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유산방법으로는 적절히 개량된 경관을 통한 임신 산물의 외과적인 제거법인 경질제거술과 복부를 통한 자궁절개 후 제거법, 또는 임신산물이 들어 있는 채로 자궁전역시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유산이라 하며, 생존가능한 시기에 이후에 종결되는 경우는 분만이라고 한다.

심장마비·경련등 합병증 자아상실등 후유증 우려

유산중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유산은 자연유산이라고 하는데, 80% 이상이 임신 12주 이전에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한다. 태아사망은 산모의 임신 횟수가 많을수록, 산모나 아버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연유산의 위험은 커진다. 또 인위적으로 유발시킨 경우를 인공유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위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들이 있는 경우의 치료적유산과 모성건강 또는 태아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기타 이유로 유산하는 선택적유산이 있

경 경관개대를 거쳐 임신산물을 배출시키는 약물이용법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효과와 안전면에서 탁월한 낙태제는 극히 희소한 실정이다. 유산 후에는 합병증과 심신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합병증으로는 사망, 심장마비, 경련, 방광손상, 폐전색증, 출혈등이 있다. 또 정신적이 내영향으로는 자아상실, 죄의식으로 진정될 수 있고, 불안감, 비애감등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기도 한다. 김용탁 (동국대 의대 산부인과장)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쉬운 불교책

읽기 쉽습니다. 배우고 행하기 쉽습니다.
일타 큰스님의 가르침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윤희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죽음 뒤의 세상... 과연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인가?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가는 인생...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알게 된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 윤회담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신국판 / 242면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 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이 책을 펼쳐들면 누구나 알기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작하는 마음>과 함께 진리를 향한 첫걸음을 옮겨 보자. 자유롭고 깨어 있는 나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신국판 / 342면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후회없는 구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열가지 보배경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 큰스님께서 적절한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은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불교신행의 나침반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부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백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한희롭고 평화로운 삶의 길잡이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 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 줄 것이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공양문

불자라면 꼭 읽어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72년 초판 발행 이후 끊임없이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전해져 온 책. 불서가 귀하던 시절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구해다 놓고 두고두고 읽었던 책. 이제 그 책을 효림에서 새롭게 증보 발간하여 불자들에게 앞에 선보입니다.

시원스런 편집, 읽기 쉬운 가로짜기, 한글 번역문과 함께 실린 원문으로 초심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하였습니다. 발심·수행·구경(究竟)의 길을 '법공양문'과 함께 여행하며 참다운 법공양의 기쁨을 느껴 보십시오.

신국판 / 288면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법공양문** 전화: (02)587-6612·6613 팩스: (02)586-9078